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 본 출장의 목적은 일본 돗토리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동 대학이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하의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가족농업」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에 한국측 발표자로 참석하여, 동아시아 가족농업의 진로를 공동모색하고자 함.

2. 출장자,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출장자: 박문호 연구위원
- 출장기간 :2014. 10. 22(수) - 10. 25(토) [3박4일]
- 출장지: 일본 돗토리현

3. 주요 조사 내용

-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의 가족농업의 동향과 대응전략
 - 한국(박문호): 글로벌경제하의 한국의 가족경영 동향과 육성전략
 - 중국(손위주): 글로벌경제하의 중국 가족경영의 도전과 대책
 - 일본(미쓰무라 이치젠): 글로벌경제하의 일본농업에 있어서 가족경영

4. 주요일정

일시	지역	주요일정	비고
10.22(수)	인천 돗토리	인천국제공항 출발 → 오사카 경유→돗토리 도착	
10.12(일)	돗토리	심포지움 참석, 발표	
10.13(월)	돗토리	현장견학, 돗토리→오사카	
10.19(일)	오사카 인천	오사카→ 인천 도착	

5. 주요 면담자

면담자	기관명	직위	연락처
노우미 마코토	돗토리대학	교수	0857-31-5445
마쓰무라 이치젠	돗토리대학	교수	
마에가와 니타로	돗토리대학	교수	
야스노부 쿠미	돗토리대학	교수	

II. 주요조사내용(심포지움 발표요지)

1. 중국

-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경영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 그리고 그 기본틀로서 가정농장(가족경영)을 바탕에 두고 있음. 가정경영외의 새로운 경영주체는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즉, 가정농장(家庭農場)에 접목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합작사에 의한 사회서비스 기능, 상공업자의 농업에의 투자촉진이 그것이다.

2. 일본

- 일본의 가족경영의 약체화되고 있는 가족경영의 과제는 안정된 농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로서 가족과 경작자가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여 농지소유의 안정성, 자원관리의 안전성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이러한 조건정비하에서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영농집단의 성립시키는 것이 일본농업의 과제다.

3. 한국

- 앞으로의 농업경영은 전업농의 주도하에 산업전반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며, 농업경영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영세농의 보호를 위해서는 탈농의 유도 보다는 지역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마을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 둘째, 농업외부에서 능력있는 인력 및 자본의 유치가 중요하며, 경영체의

육성도 농업차원이 아닌 농산업의 육성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를 농업부문에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최근의 도시로부터의 신규취농인력의 유입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농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는 맞춤형 경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요구됨. 전업농 내지 농산업경영체에게는 산업정책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중·소농 에게는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사회의 틀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넷째,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역 리-더의 육성이 요구됨.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통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요약

-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가족경영의 공통점은 영농규모의 영세성, 가족노동력의 약체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제체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경영이 연합하여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일치하고 있음. 세부전략으로서는 중국의 경우, 가족경영의 틀을 유지한채 사회적비스기능을 수행하는 합작회사, 상공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농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안정적인 권리가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전면적인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체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가족농을 핵으로 하는 지역농업의 조직화와 함께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과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농업에 유입시켜, 농업 연관산업과 연계된 산업으로서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조직시스템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확보가 과제라고 할 수 있음.